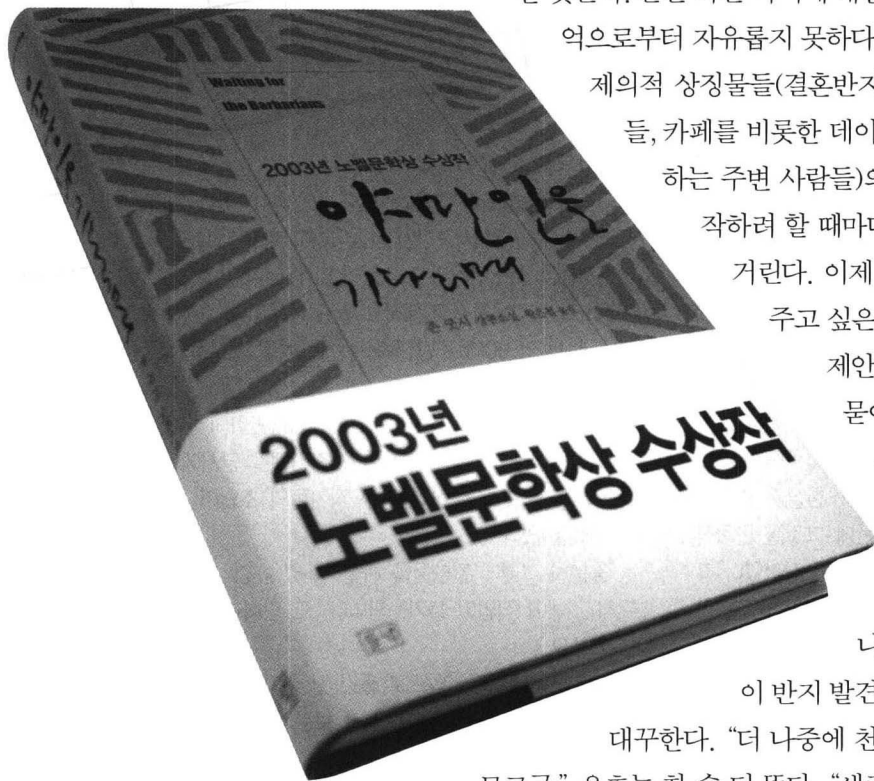


존 쿨시의 《야만인을 기다리며》

제국의 문화와 야만의 문화가 교차하는 지점에 남겨지는 ‘자연’의 흔적

글_정여울



드라마 《연애시대》의 주인공 동진과 은호는 해마다 죽은 아이의 기일에 무덤을 찾는다. 둘은 죽은 아이에 대한 기억만큼이나 그들이 사랑했던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들이 사랑했던 과거를 연상시키는 모든 제의적 상징물들(결혼반지, 결혼식 비디오테이프, 함께 사용한 물건들, 카페를 비롯한 데이트 장소들, 무엇보다도 그들의 사랑을 기억하는 주변 사람들)의 만유인력 때문에, 매번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 할 때마다 그들은 더 많이 머뭇거리고 더 많이 휘청거린다. 이제 그만 서로를 ‘기억의 감옥’ 으로부터 놓아주고 싶은 동진은 죽은 아이의 무덤 앞에서 은호에게 제안한다. 우리의 결혼반지를 아이의 무덤 앞에 묻어두자고. “어차피 일 년에 한 번씩은 여기서 볼 테구, 우리 두 사람 묶어두는 건 여기 뿐이니까. 여기다 묻어 두자구.” 은호는 농담처럼 말한다. “나중에 우리도 죽고, 우리를 알던 사람들도 다 죽고, 아주 나중에 한 백 년쯤 후에 여기가 개발된다면, 이 반지 발견한 사람은 땡 잡았다 싶겠다. 그치” 동진은 대꾸한다. “더 나중에 천 년쯤 후에 발견되면 박물관에 전시될지도 모르구.” 은호는 한 술 더 뜬다. “새로운 학설이 생기는 거 아냐? 21세기에는 아기 무덤 앞에 반지를 묻는 게 풍습이었다, 라든가...”

우리는 단지 이 반지를 어찌해야 할지 몰라 땅 속에 파묻었을 뿐인데. 수천 년 후 누군가는 우리의 이 ‘하찮은’ 흔적을 ‘위대한’ 21세기 인류의 집단적 풍습으로 해석할지도 모른다. 이렇듯 오늘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만들고 있는 기억의 카탈로그들은 미래인에게 어떻게 해석될지를 결정할 수 없다. 기억될지, 기억되지 못할지를 결정할 수도 없다. 어찌면 현대인이 내리는 그 모든 역사적 해석들은 과거인들이 보기에 ‘얼토당토않은 침소봉대’ 이거나 ‘못 말리는 연목구어’ 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거의 기억을 향한 인류의 호기심은 멈추지 않고, 기록되지 않은 진실을 찾아 헤매는 역사가의 여정 또한 멈추지 않는다. 때로는 ‘폭력적인 진실’ 보다 ‘아름다운 오해’ 가 과거인과 미래인의 진정한 소통을 가능케 해줄 지도 모른다. 기억의 유통방식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야말로 기억의 본질이다. 때로는 자기 자신의 기억조차 마음대로 리플레이할 수 없을 때가 있다. 분명히 자신이 경험한 사실이 울울이 기억나지 않을 때, 기억은 주체의 힘으로는 어찌할

●이 글을 쓴 정여울은

‘미디어 현터 로(공간), 《씨네21》, 《출판저널》, 《GQ》 등의 잡지에 책과 미디어에 대한 리뷰를 써왔다. 2006년 현재 한신대와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아가씨, 대중문화의 숲에서 희망을 보다》 등이 있다

수 없는 거대한 괴물이 되어 악몽의 심연 속에 잠복해 있다
가, 불쑥불쑥 의식의 지표면 위로 튀어나와 뒤통수를 가격
하곤 한다.

존 쿣시의 《야만인을 기다리며》는 바로 그곳, 스스로의
기억을 자신의 의지대로 재생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에서,
재생 불가능한 기억 때문에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
는 시점에서, 시작된다. 이 남자는 30년 동안 ‘제국인’ 의
문화와 ‘야만인’ 의 문화가 교차하는 역명의 변경에서 근
무해온 치안 판사다. 그는 제국의 일부지만 제국의 야만 외
부에 존재하고 싶다. 어느 날 자신이 스치듯 지나갔던 야만
인 가족 중의 하나였던 여자가 제국인의 고문으로 시력을
잃은 채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의 아버지는
고문 도중 목숨을 잃었다. 그는 자신이 익숙한 행정적 시선
으로 처리했던 그 야만인의 가족, 그 속에서 도저히 그녀
의 얼굴만은 기억해낼 수 없다. 그는 자신도 모를 기묘한
인력에 이끌려 그녀를 자신의 거처로 데려오고, 이해할 수
없는 욕망에 이끌려 그녀의 발을 씻겨준다. 참혹한 고문을
당해 원래의 온전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녀의 발은 제
국의 야만이 훑고 간 폭력의 자리이며, 그의 잃어버린 기
억과 그녀가 잃어버리고 싶은 기억이 만나는 제의적 공간
이다. 그들은 남자와 여자로 옷을 벗고 누워 있을 때조차
남자와 여자일 수 없다. 그는 그녀의 고문당한 몸의 흔적을
통해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과 만나려하지만, 그녀에게는
매순간 자신을 통해 어떤 ‘언어’ 를 끄집어내려는 남자의
질문이 또 하나의 고문이다.

매일 그녀의 발을 씻겨주며 잃어버린 기억을 찾으려 하
던 그는 마침내 깨닫는다. 아무리 자신이 제국의 ‘외부’에
존재하는 개인적 양심을 찾으려할 지라도, 평생 동안 그녀
의 상처를 쓰다듬고 씻어낼지라도, 이미 그녀의 가족을 앗
아가고 그녀의 눈과 발을 앗아간 제국의 ‘죄악’ 까지 씻어
낼 수는 없음을. 그는 알고 있다. 야만인의 삶의 터전을 아
무리 오랫동안 폭력과 고문으로 점령해도, 야만인의 몸과
마음에 깃든 과거의 ‘기억’ 자체를 점령할 수는 없다고.
“우리는 1백년도 넘게 이곳에 있었소. 우리는 사막으로부터
농토를 보호하고 관개시설을 만들고 들에 곡물을 심었
으며, 탄탄한 집을 짓고 도시 주변에 벽을 쌓았소.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우리를 이곳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방문
객으로 생각하고 있소. 아직 살아있는 노인네들 중에는 그
들의 부모가 이 오아시스가 전에 어떠한 형태의 것이었는
지 그들에게 얘기해줬던 걸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다오.” 제
국인들은 야만인들에게 새로운 ‘문명의 기억’ 을 주입하려

하지만, 야만인들은 그들만의 오아시스에서 행복했던 과
거의 ‘기억’ 을 결코 순순히 삭제해버리지 않는다.

그는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자고 결심하고 야만인들의
거처로 그녀를 데려다준다. 그녀를 되돌려 보내는 길 위에
서야 비로소 둘은 서로에 대한 무구한 열정을 확인하지만,
그녀는 문명의 도시에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한다. 이제 그
녀마저 잃은 그는 그녀에 대한 사랑을 통해 구원받을 수도
없고, ‘착한’ 제국인으로서 예외적 대우를 받을 수도 없다.
그는 자신이 아무리 역사의 집합적 굴레 속에서 벗어나려
해도 단지 ‘일종의 중개인! 양의 탈을 쓴 제국의 자칼! 이
상이 될 수 없음을 깨닫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
국의 자칼로 죽는 달콤하고 아늑한 길을 버리고, ‘제국의
반역자’ 가 되어 끔찍한 형벌을 건디는 길을 택한다. 그는
명예롭게 죽을 수도 없고 야만인의 전사가 되어 활극을 벌
일 수도 없다. 시시각각 조여오는 죽음의 공포는 그를 한
마리 단순한 밥벌레로 전락시켜 버린다. “당신에겐 미래가
없어. 당신은 역사에 순교자로 기록되기를 원하는 것 같군.
하지만 누가 당신을 역사책에 기록해줄까”

역사의 열쇠는 본래 연약한 개인의 손에 넘겨진 적이 없
다. 그러나 이 남자는, 사랑도 구원도 불가능한 불모지에
서 마지막 나날을 기다리며 끝내 그 허무의 늪을 홀로 건너
려 한다. 사람은 자기가 기억하는 일에만 충실해질 수 있
고, 자기가 아는 일밖에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 하지
만 이 남자는 자신이 기억할 수 없는 일에 목숨을 바치려고
하며, 자신이 모르는 일마저 기억하려 한다. 자신의 저항
에는 아무런 영웅적인 찬사도 깃들 수 없음을 알면서도,
전 우주에 홀로 맞서는 듯한 승산 없는 싸움의 자리를 선택
한다. 이 소설의 또 하나의 주인공은 제국인 남자나 야만인
여자가 아닌, ‘자연’ 이다. 자연은 인간의 모든 행동을 빠짐
없이 자신의 몸에 각인시킨다. 사건의 주체가 소멸할지라
도 자연은 ‘흔적’ 으로서, 불가해한 상형문자로서, 미래를
향해 무한히 노출되어 있다. 먼 훗날 인간의 역사책은 그를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더욱 더 먼 훗날 자연에
아로새겨진 작은 흔적은 이 승산 없는 싸움의 자리를 아름
다운 폐허로 드러낼지도 모른다. 그가 제국인이 훑고 간 흔
적을 파낼 때마다, 끊임없이 발굴되는 것은 ‘위대한 문명’
의 흔적이 아니라, 제국인에게 고문당해 제대로 매장도 되
지 못한 야만인의 훼손된 시체들이었다. ■